

나주시 천연염색 처녀의 비가



News Letter of the Naju Foundation of Natural Dyeing Cultural

April 2007

“자연의 색과 상생을 꿈꾸며...”

원연한 봄입니다. 여기저기 앞 다투어 피어나는 꽃들의 숨소리에 생명이 넘치고 나무들은 땅속의 물을 제 몸에 길어 오르느라고 바쁜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생명의 계절임을 느끼게 됩니다. 춥고 길었던 겨울의 침묵을 뒤로하고 자연은 인고의 산통을 통해 또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새싹들의 향연을 눈부시게 가져다주겠지요. 우리 같이 염색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자연의 부름에 순응하며 곱디고운 천연의 색들을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분디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색깔들은 오만하지 않으면서 겸손으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 모든 것을 수용해내는 힘을 지닌 듯 합니다. 거기에는 서로가 소통하고 배려하는 공존이 있음입니다. 천연염색이란 이름으로 물들이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자연의 색을 만나고 있으면 언제나 자연의 넉넉한 포용력과 질서 정연함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아무리 천연염색이라 할지라도 자연은 욕심 사나운 인간이 끝없는 욕망으로 색깔을 탐하면 늘 그 쫓아나온 만큼의 색깔만을 허락해 주지 않는 듯 합니다. 자연과 조화하고 서로가 상생하며 그 품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라는 무언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은 색은 자연을 닮아간 듯 합니다.

색이 인간 삶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력이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지요. 돌이켜보면 그런 색의 영향력을 안고 사는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던가요. 공장에서 무한대로 만들어내는 화학염료와 대량생산의 시스템을 구축한 인류는 무차별적으로 인공의 색을 우리 삶 위에 쏟아내었고 이동수단의 발달로 지구 저편 아니 수 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수 시간 내에 유통이 가능한 편리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속도와 생산력은 우리에게 편리를 가져다주었지만 우리는 그 편리를 얻는 대신 화학염색 폐수로 인한 생태의 파괴와 정서불안 더불어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진득함에서 멀리 물러나 있게 하였습니다. 속도 경쟁이나 대량생산된 화학색에 우리 삶이 밀리고 또는 편승해서 가다보니 우리 정신은 삭

막하게 피폐해지고 삶의 여유 또한 점점 사라져 버렸습니다.

색의 원형적인 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색은 여전히 그것의 힘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색과의 능동적인 접촉은 심지어 냉담한 현대인에게 까지도 극도로 극적이며 완전히 압도적인 힘을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색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화학적인 색으로 겹겹이 무장하고 포위당한 채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우리의 염색 문화는 우리 강산에서 얻어진 천연염료를 이용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강산에서 나는 자연의 색이 우리 민족의 심성과 정서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는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우리 강산의 자연의 색과 우리 삶이 닮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터입니다. 그동안 천연염색 문화의 전통이 계승되지 못하고 발전논리와 대량생산이라는 미명 of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단절되는 뼈아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뻘뻘하고, 쉽고, 가벼움으로 변하면서 우리는 유구한 천연염색문화의 전통과 자연의 색깔들을 잃어 버렸던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에서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계승하고 잃었던 것을 새롭게 복원하며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전통 색을 다듬은 염색인들의 소명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지난해 다행하게도 우리 지방에 천연염색을 보급하고 문화를 새롭게 창출 할 수 있는 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천연염색 문화의 메카를 꿈꾸며 힘찬 비상을 시작한 것입니다. 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은 천연염색에 대한 사명의식으로 많은 염색인들과 일반 대중에게 다가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지는 자리에는 자연의 색깔로 인해 서로의 삶이 열리고 상생의 미학을 공유하는 대 자연의 넉넉함이 있을 것입니다. 은은한 깊이를 가진 자연의 색처럼, 이 강산에 찾아오고 있는 봄날의 희망처럼.....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이사 김왕식

* 인도 쪽을 이용한 간편 염색법!!

최근 천연염색의 의연스럽고 아름다운 매력에 흠뻑 빠진 분들이 점차 늘고 있고 있는데, 그 중에서 쪽 염색이 으뜸이라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쪽 염색물은 아름답지만 염료를 만드는 것도, 염색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대안으로 인도 쪽을 구입하여 간편 염색법을 이용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

재료

인도 쪽(분말), 피염물(정련을 마친 천연섬유), 수산화나트륨 또는 소다회, 환원제(Hydrosulfite; 하이드로설파이트), 스테인리스 용기 등

염색방법

- ① 스테인리스 찹통(20L)에 미지근한 물(5L)을 담습니다.
- ② 쪽 분말(50g)을 큰 믹서에 반을 넣고 물을 적당량 채워 2분간 가동 후 통에 붓는다. 다시 나머지 반을 같은 방법으로 한 뒤 찹통에 붓고 믹서를 씻은 물도 같이 찹통에 붓는다.
- ③ 소다회(50g) 또는 가성소다(55% 액상 25g)를 찬물에서 희석시킨 뒤 찹통에 붓고 물을 보충해 전체 9L 정도를 만든다. 특히 고체상태의 가성소다(15g)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찬물에서 녹인다.
- ④ 찹통에 열을 가해 온도를 올려 60℃에서 10-20분간 유지 시켜주며, 도중에 잘 저어 준다.
- ⑤ 환원제(하이드로설파이트)를 찬물 1L에 미리 녹인다. 환원제의 양은 쪽 염료의 사용량에 따라 다르며, 위의 경우 20-30g을 추천한다.
- ⑥ 쪽물이 파란색에서 맑은 노란색 또는 연두색으로 바뀌면 정련된 원단을 넣고 수면에서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눌러 주면서 원단이 노란색으로 바뀔 때 까지 계속한다. (5-10분)



- ⑦ 노란색으로 변한 원단을 찬물에 넣고 파란색으로 바뀔 때 까지 행군다. (완벽하게 행구어 완전한 산



화가 되도록 하고, 건조하기 전에 쪽염색 된 원단의 pH가 반드시 중성을 유지한다. 원단을 건조한 다음 다시 행군을 실시해서 알칼리제 성분을 중화할 수도 있다.)

- ⑧ 양지바른 곳에서 말린다.
- ⑨ 염색 후 남은 쪽물은 농도는 연해지지만 60℃로 올리고 환원제만 보충해 주면 되며, 알칼리에 약한 실크나 울을 오래 염색하면 섬유가 상하게 된다. 또 알칼리제이 환원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고무장갑을 착용한다.

인도쪽의 효과적인 염색을 위한 재료들

우리나라에서 인도쪽 염색시 이용되는 재료는 대부분 인도쪽, 소다회 또는 가성소다, 환원제(하이드로설파이트)만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환원제 외에 쪽염색 염역안정제, 환원제 검사액, 쪽 용해액, 쪽염색 발색제 C, 초산(酢酸) 80%, 쪽염색 전용 세정제, 쪽염색 탈색액 등을 사용하여 얼룩 없이 선이하게 염색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 뮤지엄샵에서는 이들 재료를 판매할 예정이다.

천연염색, 학교 속으로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서는 2006년도 동계 특수 분야 교원직무연수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2006년 12월 11일부터 2007년 2월 2일까지 동계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천연염색, 압화이 플라워디자인 등 생활속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쾌적한 시설과 전문가들의 충실한 강의이 실습지도에 속에 이루어져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연수를 마친 교사들과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 연수 이후에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로 하여 천연염색이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서는 2007년 여름에도 천연염색, 규방공예에 관련된 하계 특수 분야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국천연염색연구회 세미나 가져

한국천연염색연합회는 2007년 들어 정기 세미나를 2회 개최하였다. 첫 번째 행사로는 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에서 무늬염 중 호염을 이용한 천연염색기법을 주제로 2월 1일~2월 2일 까지 1박2일 동안 김윤희 전시교육팀장의 진행하에 이루어졌다. 두 번째 행사는 경북 청도군 소재 느티나무 공방에서 감물염색에 대한 세미나를 3월 3일~4일까지 1박2일 동안 진행하였는데 느티나무 공방 김대진 대표가 진행하였다.



친환경 천연염색화이셔츠 대량출시

(주)세노코에서는 친환경 천연염색한 이이셔츠를 대량으로 출시하였다.

황토, 분홍, 노랑, 갈색, 회색, 짙은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세탁4-5급, 땀4-5급, 일광4급 이상의 고품질의 제품이다. 시험 성적에서 화학염료, 발암성염료, 알러지성염료,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 안되는 친환경 제품인 이이셔츠는 독일의 환경마크인 DIN마크이 한국의 친환경인증마크를 받은 제품이다.

제1기 천연염색 지도사 과정생 수료 작품 전시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서는 지난 2월 초에 천연염색 지도사 특별과정(60시간)을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지난 3월 15일에 수료식을 가졌다. 수료생들은 감물, 소목, 쪽, 홍화 등 식물염색에서부터 황토 등 광물염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천연염색 기술을 익혔으며, 그 결과물들은 3월 20일(화)부터 5월 13일(일)까지 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 제 2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되는 "제1기 천연염색지도사 특별과정 작품전시회"를 통해 선보이고 있다.



'천연의 색과 소통' 천연염색전시회

광주시 북구청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주관하는 "천연의 색과 소통전-물, 꿈빛 창립전"이 2007년 4월 3일(화)부터 29일(일)까지 광주시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된다. 가방, 의류, 아이디어 천연염색 상품 등 50여점이 전시되는 "천연의 색과 소통"전의 초대일은 4월 3일 오후 6시이며, 4월 14일, 15일 오후 2-5시에 체험 부대 행사를 갖는다.

2007년 첫 기획전 “생활소품 판매 기획전”



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에서는 4월 7일(토)부터 5월 13일(일)까지 2007년도 첫 기획전인 “생활소품 기획전”을 갖는다.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서 한국천연염색연합회 회원들을 초청하여

이루어지는 이번 기획전에는 다양한 천연염색생활용품 외에 실제적으로 활용되는 쪽, 감, 황토를 염료로 된 천연염색 제품을 전시한 림도 제시할 예정이다.

기획전 행사기간 중에는 패션쇼 2회(4월 7일 16:50~17:30, 5월 5일 14:00~14:40), 심포지엄(4월 7일) 등 다채롭고 내실있는 행사와 함께 전시작품의 예약 판매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인도에서 만난 자연과 일상에 대한 색깔 사진전



인도의 일상의 색을 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으로 옮겨 놓았다.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이설제씨는 지난해 1월 1이월 간의 인도 여행 중 색을 위주로 촬영한 사진(‘색의 잔존’)을 4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 1층과 2층 로비에 전시한다. 5월 5일에는 전시작품과 인도의 색을 회화주의적, 구성주의적 형태로 소담한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천연염색 유명 브랜드 “뽕데강” 의류 판매

KBS 1TV 역사스페셜에서 진행자 고두심씨가 입고 선보였던 것과 같은 천연염색 의류를 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 뮤지엄샵에서 만이 수 있게 되었다.

가요 “꽃반지 끼고...”로 유명한 가수 은희씨가 디자인한 천연염색 의류 “뽕데강”이 지난 3월 중순부터 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 뮤지엄샵에서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다.

한국적인 정서이 색상을 자연스러우면서도 품격 있게 디자인한 “뽕데강” 의류들은 소비자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오픈 예정

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에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천연염색문화의 보급을 위하여 그동안 전시회, 교육과 교구이발에 힘써 왔다.

그 중 염료, 염색재료 등 교구이발은 구입이 어려워 초보자들이 천연염색에 접근하고, 실행을 하는데 장애가 되어 왔는데, 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에서 이발하여 4월중에 온라인 쇼핑몰에 전시 및 판매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이 쉽게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연염료 및 염색 제품 위탁 판매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서는 천연염색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 문화보급 및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천연염색제품을 위탁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자 하는 천연염료 및 제품이 있으신 분들은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뮤지엄샵(판매장)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061-335-0160)

발행인 : 신정훈 /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이사장, 나주시장이사 : 김왕식, 김태구, 이상필, 정경진, 정관채, 장흥기, 홍철식 편집인 : 장흥기, 허복규, 김윤희, 이재연, 최정락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NAJU FOUNDATION OF NATURAL DYEING CULTURAL

(우.520-931) 전남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163번지 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 내 Tel. 061-335-0091, 335-0098, Fax. 061-335-0092 http://www.naturaldyeing.or.kr